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

-대니얼 저스터(Daniel Juster)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일 4:16)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의 가장 깊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 해야 할 재판장이시라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하나님의 열세 가지 속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정의를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 34:6-7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분명하게 죄는 세대를 넘나드는 영향력이 있으며 형벌을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행은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사랑 가운데 행하시지만, 죄를 벌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랑과 정의

그러면 무엇이 사랑입니까? 성경을 실증적으로 읽고 난 후 내린 저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사랑이란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들과의 공흠어린 동일시입니다. 다른 이들의 유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운명으로 정의됩니다."** 이 정의가 객관적인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반하는 그 어떤 것도 사랑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계획하신 운명만이 모든 인류를 위한 그 분의 공의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사랑은 성경의 율법에 의해 인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율법이 없다면 우리에게 단순한 감정 밖에 남지 않습니다.

공정한 질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의도하신 운명을 성취할 수 있게 해 주지만, 불공정한 질서는 그러한 운명을 성취하는 것을 가로막거나 방해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모든 사람은 존중과 위엄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모든 사람은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 법정 앞에서 평등하다는 성경적 규범의 관점 이외에서 정의는 평등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과 긍휼로 동일시

사랑에 대한 이 정의에는 **감정**의 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가지고 동일시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입장에 서서 감정적으로 긍휼을 느끼게 되어 그들의 유익을 위해 행동할 동기를 부여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맑스주의식 정의와 같이 동등한 부를 가지게 되지는 않지만, 정의로운 질서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충분한 물질적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공급이 없이는 운명의 성취가 방해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가치를 인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 볼 때, 우리는 그들 안에서 더 큰 가치와 존귀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다른 이들과 **긍휼로 동일시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알 때, 주님의 아름다움, 선하심, 사랑과 정의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통치에 굴복하며 우리 구원자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슈아를 인정하는 것을 보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 운명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의 교제가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사랑은 다른 이들에 대해 최선을 바랍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최선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운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준이 깨어지도록 내버려두면 예외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운명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을 파괴하는, 총체적 부정과 죄악의 질서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오직 정의로운 질서 안에서만 번성합니다.** 이혼 가정의 자녀들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운명을 성취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결혼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회는 훨씬 큰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은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지만, 느낌도 사랑의 일부분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성경적 원리에 따른 객관적 기준을 요구합니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긍휼로 그들과 동일시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예슈아의 역사에 의해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슈아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예루살렘 전체의 기도

지난 목요일에 예루살렘에 있는 6-7개 공동체의 지체들이 연합하여 찬양과 기도의 밤을 가졌습니다. 에디 산토로(Eddie Santoro) 목사님과 쯔비 란델만(Zvi Randelman) 목사님이 영적 전쟁 가운데 찬양에 집중된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둘러싼 환란이 점점 강렬해질수록,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분을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풀어놓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악으로 의도된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환란 중에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렘 30:7**).

이 기도 모임은 “전 지구 백만 명 예루살렘 행진” 전야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백만 명을 조직한 사건으로,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대하 14:9**). 그리고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항하도록 전세계를 연합시키거나 지구적 노력을 결집시키려는 생각은 지속적으로 더 악화되어, 결국에는 세상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에 이를 것입니다(**슥 14:2**).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공동체가 공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연합 기도를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대한 영적 승리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믿음 안에서 연합하여 일어설수록 악의 세력은 분열하여 무너질 것입니다(**눅 11:17**).

유월절

이번 금요일 저녁은 전세계 유대인들이 유월절 세데르를 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의 대가족 중에는 대부분 적어도 한 명의 메시아닉 유대인이 있거나 메시아닉 유대인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민족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양이신 예슈아를 만남으로, 유월절의 충만한 의미를 알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